



축복받은 성모 마리아의 장미꽃밭

캐나다 주교들에게 보내는 탄원서

피임은 개관적으로 보았을 때 확실히 불법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든 절대 정당화되어서는 안된다. 반대로 피임이 인간의 생명을 관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경우에는 신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합법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 로서바토레 로마노에서 인용, 1983 년 10 월 10 일)

대주교님과 여러 성직자들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캐나다내 천주교회에는 피임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가 널리 퍼져있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천주교 부부들은 피임수술이나 피임법으로 자녀출산을 차단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출산율은 치명적으로 낮습니다. 피임이 일어날때 마다 교회가 죽음에 이를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책임은 피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고방식을 전환시키는 것” 이라는 말이 진실되게 들리고 있습니다.

피임은 악마의 정신이 결실을 맺는 뿌리가 됩니다: 낙태, 불신앙, 이혼, 혼전관계, 동성애의 인정, 동성결혼의 찬성확산, 정치와 언론의 타락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성행위가 생명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메마른 성적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략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덕적, 사회적 재앙은 교회가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1968 년 9 월 27 일 위니펙에서 발간된 주교들의 성명서를 통해 피임의

긍정적 사고가 퍼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정한 경우에 배우자 중 하나가 어떠한 결정(예를 들면 피임)을 내렸다면 올바른 양심을 지닌 상태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26)”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인간에 대한 자애, 정의, 진실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피임은 예외가 없는 본질적으로 악한 행위라는 교회의 꾸준한 가르침과 완전 상반된 것입니다. (Humanae Vitae, 14)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은 위니펙 성명서가 피임을 정당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랑에 대한 진실을 캐나다에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의 양치기인 여러분들께서 위니펙 성명서를 무효화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혼준비 과정, 교리문답 책자, 강의, 강론, 고해성사가 예수님의 권위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휴메나이 비테의 내용에 맞게 진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HV,6).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1990년 필리핀 주교들은 피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 서면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는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고 외로운 양심과 함께 내버려두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올바른 선택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2003년 11월 열린 전국 주교회의에서 왜 피임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리는 강한 내용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레고리 전국 주교회의 의장은 이 내용이 소책자 형식으로 널리 교회에 보급될 것이며 고등학교와 대학에서도 이를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효과적으로, 자주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늦었다”



---

---